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에 따른 IED 위협분석과 대책

최진태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재건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한국군을 아프간에 재파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프간은 탈레반의 정치·군사적 장악력이 급속도로 확대된 반면, 미군과 나토군을 비롯한 아프간 정부군의 입지는 점차 좁아져 군사적 열세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9년 12월에 3만 여명 수준의 아프간 병력 증파를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간에서 활동할 PRT 팀과 보호 병력은 무장 갈등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며, 테러로 인한 PRT 요원들과 군 병력의 안전도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군의 재파병이 이루어지고 활동이 개시되고 나면 최대의 위협은 IED가 될 가능성은 높다. IED는 이라크에서 미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엔 아프간에서도 IED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아프간 재파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IED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단기적으로는 IED 대응원칙 수립, IED 위협 평가 및 대응 계획수립, IED 대응에 대한 실질적 교육 및 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신속한 도입을 통해 파병 이전에 대 IED 장비의 완벽한 전력화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對) IED 정보 능력 강화, IED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응기구를 신설하고, IED 교리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군 파병, 아프간, IED 테러, 탈레반, 대테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 정부는 2009년 10월 30일 유엔안보리 결의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의 재건 및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한국의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을 보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아프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¹⁾. 2009년 12월 8일에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0년 2월 25일 국회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아프

간 파르완 주(州)에서 PRT 인원에 대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할 300명 내외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었다(연합뉴스, 2010년 2월 25일).

정부의 파병에 대한 결정은 첫째, 파병이 국제안보지원군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인력장비 제공 등을 촉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대테러 국제공조 요청에 따른 것이며, 둘째,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조직과 싸우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일이며, 셋째,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재집권을 하면 9.11테러를 자행했던 알 카에다와 같은 과격 테러세력의 근거지가 될 것이고, 한국도 그들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넷째, 세계 각지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행위는 한국의 위상 및 신뢰도 향상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에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군 병력을 다시 아프간에 보낼 경우 이슬람권의 거센 반대와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파병 시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의 집중적인 공격은 물론 이슬람권 국가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에 대한 보복 테러는 물론 국내로 잠입한 테러범에 의한 대형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²⁾. 실제로 탈레반은 파병결정 직후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 한국인 봉사단원 인질납치 때 인질을 풀어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은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협박을 했다.(세계일보, 2009년 12월 10일) 탈레반의 협박은 충분히 예상되었고, 정부도 탈레반의 메시지를 “전형적·상투적 테러집단의 파병 저지 책동으로,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 직전 국론 분열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으로 받아드리고 있다.(중앙일보, 2009년 12월 11일) 그러나 탈레반은 각국의 파병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협박을 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탈레반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은 한국의 군 파병에 대한 반감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협박이나 심리전의 형태로 탈레반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울러 아프간의 상황은 자이툰부대가 주둔했던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과는 다르다. 아프간 지방재건팀이 머무를 파르완 지역은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곳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면적이 서울의 10배 가까이 되고, 70%가 산악 지형으로 탈레반의 공격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보안군 46명이 사망한 지역이다(조선일보, 2010. 2. 26).

현재 아프간은 탈레반의 정치·군사적 장악력이 급속도로 확대된 반면,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과 아프간 정부군의 군사적 열세가 심해지고 있다(연합뉴스, 2010. 2. 3).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9년 12월에 3만 여명 수준의 아프간 병력증파를 결정했다(중앙일보, 2009. 12. 1).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간에 파견될 PRT 팀과 보호 병력은 무장 갈등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며, 테러로 인한 PRT 요원들과 군 병력의 안전도 위협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될 국군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 및 본부, 경호·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 등으로 편성되며, 주 임무는 우리 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 요원들의 외부활동을 호송 및 경호하는 것이다.

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9년 11월 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국정질문에 출석하여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란과 관련,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고, 2009년 10월 29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국회답변에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의 보호를 위해 파병될 경우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프간에 대한 군의 재파병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면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이 최대의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IED는 이라크에서 미군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엔 아프간에서도 IED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IED 공격 건수는 2007년 이후 350% 증가했고, IED에 의한 사상자 수는 400%나 늘어났다.(The Joint Improvised Explosive Device Defeat Organization, 2009: 7-11) 미군은 이에 따라 각종 첨단무기보다 IED 테러 공격에 대한 방어기능이 우수한 장갑차량(MRAP) 배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IED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2008년에만 1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조선일보, 2009. 11. 2).

일반적인 IED 공격은 물론이고 차량에 폭발물을 적재한 채 공격지에 접근하여 폭발시키는 차량 급조폭발물(Vehicle Born Improvised Explosive Device: VBIED), 특정 위치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원격 조종해 폭발시키는 무선·원격조종 급조폭발물(Remote Controll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RCIED) 등 다양한 형태로 IED의 공격이 진화하고, 그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IED에 대응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주요 테러 유형인 IED에 대응할 우리 군의 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프간 재파병에 따른 테러위협 중에 IED 위협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방법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非)군사적인 공격대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군사적 공격대상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아프간에서 발생한 분당 샘물교회 인질 납치테러 사건 이후 아프간에 대한 일반적인 테러정세,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능성, 테러유형 및 대책 등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일반적인 주제에 국한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에 한국군이 파병되어 평화 및 재건지원 활동을 전개하면서 군에 대한 테러위협이 높아졌지만 한국군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위협과 대책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분당샘물교회 인질납치테러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탈레반은 한국군의 철수를 그들의 요구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아프간에 다시 파병되어 활동을 개시할 경우 아프간 테러조직과 탈레반의 테러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再)파병되는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 위협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다국적군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아프간에서 IED는 테러조직의 주된 무기이며, 가장 많은 미군 사상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재파병 후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협 역시 IED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분석과 대책에 대한 연구는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된 단행본, 논문, 일반간행물, 그리고 언론보도 등

을 포함한 공개정보 중에 IED와 관련된 제한적 자료를 문헌분석에 활용했으며, IED 위협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발행된 정부 보고서 및 IED 대응조직의 연례보고서, 그리고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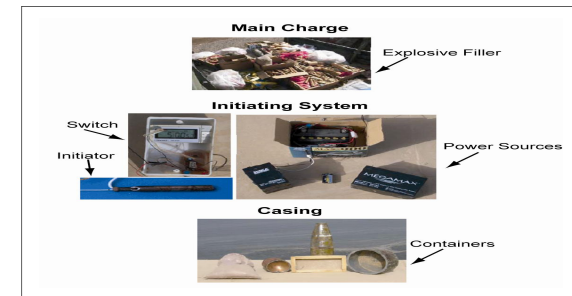
II. IED의 본질: 정의, 구성 및 유형

1. IED의 정의

IED는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의 약어로 폭발성, 치명성을 가진 부품을 결합하여 급조한 폭발성 장치를 말한다. IED는 규격화된 군용탄약 혹은 상용 폭발물을 본래의 운용목적 또는 작동방법과 다르게 급조하여 만든 폭발물을 의미하며, 군용(軍用)이라는 용어에 대비하여 사제(私製) 폭발물로 지칭되기도 한다(Department of the Army, 2005: 4-1). IED는 통상적으로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은닉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따라 크기나 모양을 변화시킴으로서 식별이 용이하지 않도록 제작된다. IED의 용도는 테러조직이 인명 살상 혹은 시설 파괴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군용 혹은 상용 폭발물과 마찬가지로 IED의 제조 방법은大同小異하며,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제조기법도 복잡하지 않아 테러조직이 선호하는 공격수단이 되고 있다.

2. IED의 구성

IED는 아래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주(主)장약(Main Charge), 기폭장치(Initiation System) 그리고 케이스(Casing)로 구성된다(US Department of the Army, 2005: 4-1).



<그림 1> IED의 구성 예

자료: Department of the Army, United States Marine Corps(2005)

주장약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물체로서 군용탄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폭약, Trinitrotoluene(TNT), 다이너마이트 등도 주장약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폭발력과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못, 너트, 베어링 등을 함께 사용한다. 기폭장치는 주장약을 폭발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뇌관과 점화장치로 구성된다. 뇌관은 통상 매우 민감한 폭약으로 제조되어 쉽게 폭발하며, 그 폭발력으로 주장약이 폭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뇌관은 크게 전기식과 비전기식이 있으며, 뇌관을 폭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원 공급을 위해 각종 배터리 등과 같은 점화장치가 사용된다. 케이스는 주장약을 싸고 있는 물체로서 주장약을 담거나 은폐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정 종류의 케이스는 폭파시 파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IED의 케이스로는 은닉에 용이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담뱃갑, 음료수 캔, 모래주머니, 타이어 등이 이용된다.

3. IED의 형태별 유형

1) 고정형 IED

고정형 IED는 공격목표로 선정된 건물에 잠입하여 설치한 후 폭파시키거나 혹은 지정된 장소에 사전에 설치 및 은닉해 놓고 공격 목표물이 살상범위에 접근 했을 때 폭파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전자는 주로 쇼팽물,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를 공격하거나 건물 내에 있는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이용되며, 후자는 주로 이동하는 차량과 인명 등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노변(路邊)에 설치된다는 특징이 있다.

고정형 IED는 테러범들이 이동 중에 보안 당국의 검색을 피하고, 공격 대상 시설 등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검색이 어렵게 하는 목적에 치중하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유형의 폭발물에는 밀창에 폭발물을 은닉하는 신발폭탄, 얇게 성형된 플라스틱 폭발물을 부착한 양말폭탄,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축구공 폭탄, 서류 등을 담은 용도로 사용하는 가방을 이용한 폭탄, 일상 필수품이 되어버린 TV, 비디오카메라,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한 폭탄, 맥주 캔 등 생필품 용기를 이용한 폭탄, 봉제인형, 장난감 등 완구제품에 폭약을 은닉하여 원격 조정으로 폭파하는 폭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낭을 이용한 폭탄 등 폭약을 담을 수 있고,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용기를 이용한 다양한 폭탄이 있다(국가정보원, 2005: 24).

고정형 IED 중 부착식은 철제 물체에 부착할 경우에는 자석 그리고 비(非)철제 물체인 경우에는 끈을 사용하여 표적에 부착하거나, 차량의 경우 엔진 하부에 부착하여 시동 시 폭파시키는 유형도 이용된다. 고정형 IED의 케이스로 자주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폭발물은 소형, 대형, 가정용 LPG 용기 혹은 소형 LPG 트레일러 등의 용기를 파괴된 차량, 트럭터, 트럭에 은밀히 설치하여, 군 기지, 건물, 차량 등을 파괴하거나 인명 살상 목적으로 이용된다. LPG 폭발물은 2차 폭발에 의한 방화를 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윤범기, 2005: 72).

2) 이동형 IED

이동형 IED는 공격 대상물의 주변 또는 공격 대상물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목표물에 접근하여 폭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VBIED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윤범기, 2005: 72). VBIED는 많은 양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공격 목표로의 이동이 용이해 무차별 폭발물 테러에 자주 이용된다. 차량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는 크게 직접 공격 방식과 간접 공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최진태, 2006: 206).

직접 공격 방식은 테러범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폭발물을 탑재하고, 공격 목표 근처에 주차시킨 후 폭발을 시키는 방법과 테러범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공격 목표에 충돌하는 자살 폭탄 공격 등이 있다. 간접 공격 방식은 주로 요인 암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테러 대상 인물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에 은밀히 접근하여 폭발물을 부착 폭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접 공격 방식의 경우 폭발물은 엔진, 트렁크, 차량 하부, 예비 타이어 보관 공간 등에 설치하며, 세밀한 점검이 없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VBIED에 이용되는 것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승용차, 앰블런스 등과 같은 특수 자동차, 그리고 대형 트럭, 레미콘 차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차량이 이용된다. 지하 주차장을 공격하는 경우 일반 자동차보다 많은 양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는 리무진이 사용되기도 한다(국가정보원, 2005: 29).

1995년 4월에 168명의 사망자와 6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지하 주차장 폭파 사건, 1998년 200여명의 사망자와 5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 등이 차량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동형 IED는 기동이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지 다양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VBIED는 주요 건물, 검문소, 인원밀집지역 등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여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동형 IED에는 자살테러범들이 이용하는 자폭벨트, 자폭조끼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 테러범이 여자인 경우에 보안 당국에게 사전에 적발되지 않도록 브래지어 IED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폭벨트는 통상적으로 TNT 폭약을 장착하여 허리에 부착한다. 자폭조끼는 직사각형의 컴포지션(C-4) 플라스틱 폭약과 수백 개의 강철 베어링을 조끼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자살 폭탄 테러의 주요 공격 목표는 군 숙영지, 관공서, 호텔, 시장 등의 군중 밀집지역이 대부분이다(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2005: 5-7).

3) 투척형 IED

투척형 IED는 정지해 있거나 이동 중인 차량의 내부 혹은 하부에 투척하거나, 대사관 등 건물, 혹은 군과 경찰의 검문소 내·외부 등을 향하여 투척함으로써 공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폭발물을 말한다. 또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있는 군중집회장소, 재래시장은 물론 군(軍) 기지 울타리 근처에 접근하여 공격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윤범기, 2005: 74).

III. 아프간의 IED 테러현황과 위협분석

1. 전 세계 테러 현황

테러의 태동기인 1968년에 전 세계적으로 103건의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는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에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것은 1976년으로 331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1980년대에는 441건의 테러를 기록한 1985년이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해였다. 테러의 발생건수가 네 자리 수자를 기록한 최초의 해는 1998년으로 1,272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138건, 그리고 2001년에는 600 여건이 증가한 1,732건의 테러가 발생했다.(최진태, 2006: 41) 국제 테러 환경은 9.11 테러 이후 개시된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보복 전쟁, 그리고 연이어 2003년에 개시된 이라크전쟁 개시와 함께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표 1> 테러 발생 현황(2004-2008)

연도	테러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04	3,254	7,476	17,311
2005	11,157	14,560	24,875
2006	14,545	20,468	38,386
2007	14,506	22,508	44,118
2008	11,770	15,765	34,124
합계	55,232	80,777	158,814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에 3,254건이었던 테러발생건수가 2005년에는 300% 이상 증가한 11,157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3,388 건이 증가한 14,545건이 발생했다. 2007년에도 증가 추세는 계속되었고, 2008년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테러로 인해 발생한 총 사망자는 80,777명이고, 부상자는 158,814명으로 집계되었다(3).

3) <표 1>, <표 2>, <표 3> 그리고 <표 6>에서 사용된 통계 자료는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에서 발행한 2005, 2006, 2007, 그리고 2008년도의 연례보고서인

<표 2> 주요 테러공격 유형 현황(2004-2008)

유형	테러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무장공격	29,168	43,265	54,297
폭발물 공격	17,736	37,257	108,484
납치	5,981	4,033	1,589

테러의 공격 유형을 보면, 무장공격(29,168건), 폭발물테러(17,736건), 납치(5,98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 통계상으로는 무장 공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면 폭발물공격이 더 위협적으로 분석되었다.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당 사망 수 1.48명인 반면 폭발물 공격의 사건 당 사망자 수는 2.10명으로 두 배 높다.

2. 아프간 테러현황 및 IED 테러 분석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후 부시 미 대통령은 즉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주목했다. 그리고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아프간에 라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0월에 아프간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시작으로 대테러보복 전쟁을 개시했다. 미국은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보복 전쟁 개시 한 달 만에 카불을 함락하고, 12월에는 탈레반의 거점인 칸다하르까지 함락시켰다. 그러나 아프간 대테러보복 전쟁 개시 8여년이 지난 현재 위축되었던 탈레반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카불을 제외한 아프간 대부분의 지역을 그들의 영향력 하에 두는데 성공한 상태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군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을 피하면서 탈레반은 꾸준히 테러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초부터 탈레반은 공격체계를 선언한 후 4월에는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가, 6월에는 저항세력이 칸다하르의 감옥을 공격해 천 명 가량의 수감자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군의 성급한 작전으로 인한 오폭과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이 계속 늘어가면서 아프간 주민들의 분노도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들어서면서 아프간에 대한 추가 파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테러 공격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아프간에서 테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는 총 15,837명이다. 이중에 사망자는 6,174명이고, 부상자는 8,475명, 그리고 인류로 억류된 수자도 1,188명이다. 아프간에서 발생한 테러의 공격 대상자 중에 민간인의 희생이 가장 커 7,218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다음으로는 테러 대응을 포함한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4,923명)과 군인(631명)의 희생이 컸다. 민간인들의 희생이 제

「Report on Terrorism」과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의 Worldwide Incidents Tracking System(<http://wits.nctc.gov/Main.do>, 검색일: 2010. 2. 25) 웹사이트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일 큰 이유는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통해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테러조직의 전술도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표 3> 테러 희생자 현황 비교(2004-2008)

구분	사망	부상	인질	희생자 총계
세계 총계	81,046	158,744	66,727	306,517
아프간	6,174	8,475	1,188	15,837

아프간에서 자행되는 테러의 수단은 IED 테러, 무장 공격 테러, 방화 테러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IED를 이용한 폭탄테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⁴⁾. IED 테러는 대량살상, 대량과괴, 심리적 위협효과와 극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 용이하여 테러범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을 색출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특히 폭약을 기포 시킬 수 있는 기폭장치는 테러범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고, 폭발물이 폭파 전에 발견되더라도 안전처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공격대상을 쉽게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테러조직이 선호하는 공격 전술이 되고 있다.

특히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IED를 이용하여 자행되는 폭발물 테러는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은 물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동맹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IED 테러의 위험성은 아프간에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아프간에서 사망한 군인의 수가 1,557명인데, 사망 원인을 보면 IED 공격이 36.49%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59.79% 그리고 2009년에는 60.84%에 달한다.

<표 4> IED 테러에 의한 아프간 파병 군인 사망자 현황(2002-2009)

년도	군인 사망자 수	IED 테러건수	IED 테러 사망자	비율(%)
2002	69	4	25	16.00
2003	57	3	26	11.54
2004	60	12	27	44.44
2005	131	20	73	27.40
2006	191	41	130	31.54
2007	232	78	184	42.39
2008	295	152	263	57.79
2009	522	275	452	60.84
합계	1,557	585	1,180	36.49

자료: iCasualties.org: Operation Enduring Freedom(www.icasualties.org, 검색일: 2010.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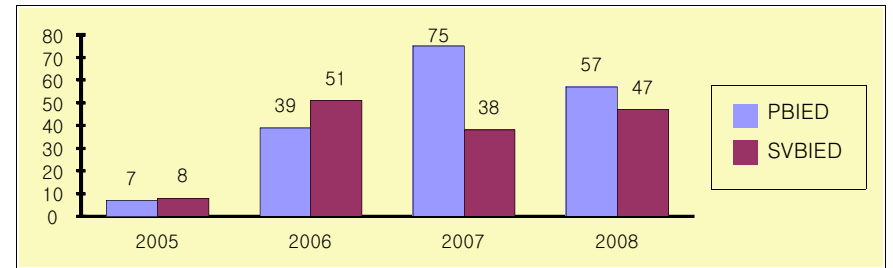
4) 이라크의 경우도 아프간과 마찬가지로 IED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3년 3월 말 이라크 나자프 고속도로의 미 육군 검문소 테러 시에 IED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2008년까지 전체 사건의 60% 정도가 IED를 이용한 테러였다. 그리고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 4,000여 명 가운데 50% 이상이 IED 공격으로 숨졌으며, 전투 도중 부상한 미군 부상자 발생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IED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또 다른 까닭은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고, 제조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아프간 저항세력들은 불발포탄이나 대전차 지뢰, 로켓탄 등에서 폭발물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금속파편과 결합하여 미군들의 순찰로 상에 쓰레기처럼 위장해 놓거나, 도로변에 매설한 뒤 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폭발시키는 IED 공격이 효과적인 전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도 IED 공격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IED 테러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살테러와 결합된다는 것이다. 자살테러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테러범이 직접 폭탄을 메고 자폭하는 Person-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PBIED)이며, 두 번째는 차량에 폭탄을 싣고 돌진 하는 Suicide Vehicle-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SVBIED) 방법이다. 차량에 폭발물을 탑재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이유는 출입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건물 내부 혹은 외부에 은밀하게 접근하여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PBIED 자살 테러의 경우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SVBIED 자살 테러는 정교한 하부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이유는 차량에 가득 실을 만한 양의 폭약이 필요하며, 경계망을 뚫고 공격 목표로 선정된 목표물에 차량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로, 검문 및 검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표 5> 아프간 PBIED 및 SVBIED 발생현황(2005-2008)



자료: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2009)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에 의한 도로상에서의 PBIED 자살 테러의 경우 공격에 사용된 폭발물의 종류, 테러범의 인적 사항, 테러범이 속한 테러 조직, 폭발물 원리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 이유는 폭발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된 폭발물에 대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46%이다(Glenn Maffei, 2005). 행인으로 위장한 PBIED 자살

테러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은 폭탄벨트이다. 폭탄벨트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코트든 셔츠든 어떤 옷차림이라도 폭탄을 은닉하기에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폭약을 테러범의 몸에 은닉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지만 의심받지 않고 테러 공격 장소로 은밀하게 침투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탄 조끼의 경우 차량 폭탄 테러에 비해 폭발력과 살상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살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폭탄 벨트나 조끼에 폭발물과 함께 볼트, 나사, 너트, 못, 쇠로된 볼베어링 등의 파편을 함께 몸에 은닉하여 살상능력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다.

IED 테러에 이용되는 폭발물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일반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사건 당 사망자 수는 1.42명이고, 차량폭발물은 5.72명으로 무차별적 혹은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테러에 이용되는 폭발물 유형(2004-2008)

유형	테러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일반폭발물	13,792	19,649	60,714
차량폭발물	2,905	16,638	47,713
우편폭발물	24	7	40

IV. IED 테러 대응방안

1. 단기적 대응 방안

1) IED 대응 원칙 확립

테러 대응 5대 일반 원칙은 회피, 예방, 탈출, 지원, 그리고 시간이다.(Juval Aviv, 2003: 107; 최진태, 2009: 77) IED에 대한 대응 역시 이 5대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회피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IED 테러가 빈발하는 시간대를 가급적 피하면서 작전에 임하라는 것이다. IED 테러는 오전 중에 주로 발생한다. 그 이유는 야음을 이용해 IED를 은닉하고, 공격함으로써 테러범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 IED 테러 공격이 용이한 지역과 장소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은 IED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갖추어 테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ED에 대한 대응이 사후관리의 기술성을 갖추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셋째, 탈출은 IED 공격이 발생하면 즉시 위험 장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제1차 IED 공격이 성공하고, 대응과정이나 수습과정에서 혼란한 틈이 보이면 제2차 공격

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지원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지휘통신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간은 요청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제2차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2) IED 위협 평가 및 대응 계획수립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에는 IED 공격에 취약한 곳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공격에 성공한 지역에서는 동일한 공격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IED 공격은 시간대별로 그 위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작전을 실시하는 지역 및 시간 등에 따라 IED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IED 공격지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전을 계획할 때는 작전전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IED 테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IED 테러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격자 중심 접근법(Attacker's Oriented Approach Method)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공격자의 입장에서 IED 테러 실행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방어자의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허점 파악이 용이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대책들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3) 작전 전개 패턴의 다양화

테러조직이 공격을 자행할 때는 목표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 선행된다. 특히 공격 대상의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포착하여 IED 테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작전 활동 루트(routines)를 다양하게 한다. 예를 들면, PRT 지원 작전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작전 전개로(路)를 매번 동일하게 하지 말고, 하루는 A 코스, 다른 하루는 B 코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C 코스를 이용한다. 작전 활동 루트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면 테러범들은 쉽게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최진태, 2009: 89-90) 매일 A 코스로만 작전을 전개한다면 테러범들은 최소의 인원과 최소의 노력으로 A 코스에서 공격 대상으로 선정된 목표물을 향해 IED 테러를 기도할 수 있다.

아울러 PRT의 임무수행 및 군의 경호 작전 전개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테러범에게 공격 시간의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작전 시간이 일정하다는 사실이 노출되면 공격자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테러 공격을 자행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해진 시간에 공격 대상지에 나타나 테러를 자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4) IED 테러 환경의 포착

적대세력이 IED를 설치하고 은닉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그러나 아무리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IED 은닉 징후를 포착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쓰레기 더미가 있거나, 땅을 판 흔적이 있거나, 평상시에 군중이 많은 지역에 인적이 한산해지는 경우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IED 설치 혹은 공격 징후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전지역내의 환경에 대한 분석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첨단 대(對) IED 테러 장비 도입을 통한 기술적 대응

아프간에서 자행되는 IED 테러는 비대칭 군사전략의 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전쟁의 최종 목적은 적에게 최대한의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 살상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제조비용이 저렴한 IED는 군사작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IED의 테러 수단화는 전통적 테러와는 다른 대처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첨단장비 확보는 필수적이다(최진태, 2001: 242-250). 미군은 IED에 의한 희생자가 증가하면서 최첨단 센서를 통해 IED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IED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혹은 IED 설치가 의심되는 차량이나 물체 등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군은 2010년 1월 29일 지뢰방호장갑차량(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MRAP)의 구입 대수를 2만5천700대로 늘리는 내용의 의정서에 서명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할 목적으로 총 2천800대의 무장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계획을 최근 승인했다.(연합뉴스, 2010년 2월 10일)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 지뢰방호장갑차량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再)파병하는 한국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뢰방호장갑차량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동아일보, 2008년 1월 18일) 뿐만 아니라 IED의 기폭 자체를 전자적으로 저지하는 첨단 장비의 도입도 필요하다. 무선기폭장치를 교란시켜 IED를 무력화시키는 제머(Jammer) 장비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2. 장기적 대응 방안

1) 대(對) IED 정보 능력 강화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다. IED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도 역시 IED 테러를 사전에 예방, 저지, 차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IED의 공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IED를 발견·제거하거나, IED 제조 물질이 테러조직에게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통제하거나, IED를 제조하는 폭발물 전문가를 사전에 검거 혹은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국방일보, 2008. 3. 6).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서 대(對) IED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IED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HUMINT)⁵⁾, 영상정보(Imagery Intelligence: IMINT),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 SIGINT)⁶⁾, 계측 및 기호정보(Measurement and Signal: MASINT)⁷⁾는 물론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 TECHINT)⁸⁾ 등 수집 수단별 능력과 특성에 맞는 IED 첩보를 수집하고 각각의 수단에 의해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대 IED 작전에 가장 이상적인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이때 각각의 수집수단은 다른 수집수단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른 수집수단으로는 수집하기 어려운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보완·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지역에서의 작전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영상정보이다. 영상정보는 지상 및 공중에서 사진촬영과 레이더 및 적외선 영상 감지기를 이용하여 획득된 첩보를 분석하여 생산되는 자료이며, IED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 및 설치 인물에 대한 확인, IED 설치가 의심되는 차량이나 물체의 확인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의 시설, 훈련캠프가 위치한 곳의 위치와 지형의 특성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여 유사시 선제공격을 통한 IED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대테러 군사작전에 유용한 정보출처가 된다. 영상정보는 다른 수단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산출해내는 장점이 있지만, 기상조건에 따른 제한이 따르기도 하며 수집된 정보의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신속한 정보 전파를 위해 자동 정보처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정보사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종합적 IED 대응 기구 신설

미국 국무부는 2006년 2월 IED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 IED 대응기구(Joint IED Defeat Organization: JIEDDO)를 신설하여 IED 대응에 필요한 전략계획 수립, IED 대응장비 획득 및 공급, IED 대응 장갑차 연구 및 개발 지원 등 IED 대응책 마련을 총괄하고 있다.

JIEDDO가 창설되어 체계적인 IED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면서 2007년에 이라크에서 IED로 인해 희생되는 미군의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종합적인 IED 대응 기구 설립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Joint Improvised Explosive Device Defeat Organization, 2008: 4).

우리는 국가차원의 IED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의 경우 IED 대응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장비 보유, 규모면 등에서 제한적이다. 각 군별로 폭발물 처리반을 운영하

5) 인간의 직접적인 수집활동을 통하여 획득되는 모든 첩보 및 정보를 말한다.

6) 통신활동과 비통신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전파를 감청 및 방탐(Direction Finding)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로 통신정보와 전자정보로 구분된다.

7) 레이더, 레이저 탐지기, 전자광학장비, 음향감시 등 여러 가지 감지기를 사용하여 표적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신호형태 및 기호를 식별 및 계측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를 말한다.

8) 현재 또는 미래에 테러 자행에 사용될 수 있는 폭탄, 총기 등 테러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성능, 제원, 능력, 단점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식별 및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고 있으나 평시 유기 혹은 불발탄 위주의 일반폭발물 처리에 치중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및 해양경찰 특공대 등 유관 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EOD 팀이 운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조직 규모와 능력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처리가 가능할 뿐 IED 처리 능력과 대비 수준은 상당부분 제한적인 실정이다(김성진, 2008: 110). 따라서 통합적으로 폭발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IED 통합 대응기구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유관 기관을 모두 포함한 대(對) IED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기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실질적인 현장 공조체제 정립, IED 처리장비 및 물자의 호환체계 구축, 유관기관 합동 IED 처리 훈련 등에 대한 조정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김성진, 2008: 118).

3) 대(對) IED 교리정립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미군 및 연합국 사상자의 주된 원인은 IED 공격이었다. 첨단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미군이 탈레반의 공격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IED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에 대응하는 테러조직 혹은 저항조직은 물리적 군사력을 동원하기보다는 비대칭전략의 일환으로 IED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평시 대테러작전에 있어서도 IED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교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의 교리에는 IED에 대한 개념이 없다(김성진, 2008: 88) 따라서 IED에 대한 군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개념을 도입하고 교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對)IED 교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IED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 IED 제작, 해체 및 제거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IED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전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김성진, 2008: 88).

4) 대 IED 교육 및 양성 과정 강화

한국군은 IED 등 다양한 유형의 폭발물처리(Explosive Ordnance Disposal: EOD)능력 배양을 위해 각 군에서 EOD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군의 전문 과정에 대한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육군 특전사 707대대에서는 2주간에 걸쳐 IED 사건분석, 장비운용, 제작, 검측, 처리, 분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는 EOD 기능장, 보수과정, 기본과정으로 나누어 각 2.5주, 2주, 6주에 걸쳐 테러유형에서부터 사고사례 및 처리장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EOD 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해군은 해군특수전단에서 EOD 12주 초급과정으로 EOD 개념과 처리절차 및 폭발물 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10주 과정을 통하여 폭발물의 종류, 특성 처리절차, 제작, 분석, 처리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의 707 대테러 부대를 제외한 각 군의 이러한 EOD 전문교육과정은 폭발물에 대한 기초개념과 이론 및 장비 운용요령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IED 테러 대비 전문적인 교과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김성진, 2008: 118-124) 따라서 IED에 의한 테러에 대비하여 테러유형과 구성요소, IED 종류 및 작동원리 이해, IED 발견시 행동절차를 포함한 IED 점화장치, 장비조작, 현장조사 및 분석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과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군의 장교 및 부사관, 병사 양성 과정 단계에서는 EOD 교육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개념 소개 위주의 교육으로 1~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공군은 EOD에 대한 교육이 전문가 과정 즉, 해당 특기별 교과과정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양성과정에서는 EOD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전군의 과정별 양성과정에 IED에 대한 교육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최진태, 2009: 110).

반면에 미군은 전부대원, 군무원, 용병들을 대상으로 IED 전문 교관들의 주관으로 교보제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이론위주의 시각화 교육을 통하여 IED에 대한 위협성과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군의 이러한 노력은 IED공격에 대한 상황인식 및 대처 능력은 이라크 전과 같은 실전에서 빛을 발했으며, 실제로 IED를 사전에 발견하여 EOD팀으로 하여금 제거토록 하여 사상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군도 향후 전·평시에 예상되는 테러 양상이 IE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IED 위협에 대한 상황인식과 행동요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양성과정에서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전군이 IED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IED는 전통적으로 정규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이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정치적 사유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이 개시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저항세력과 테러조직은 아프간과 이라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량살상과 무차별적인 피해 확산을 위해 IED 테러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적대 세력에 비해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인 무장 저항 조직이 비대칭전략의 일환으로 I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IED는 제조에 필요한 재료 구입이 용이하며, IED 제조 기법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공격 시간과 장소에 제약도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응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의 군도 진화하는 IED 테러로 인해 많은 희생에 당하고 있다. 아프간에서 활동을 하는 다국적 연합군의 사망자 50% 이상이 IED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탈레반과 테러조직이 연합군의 강력한 정규군과 정면 대결하는 것은 패배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합군의 이동경로에 미리 IED를 설치하고 원거리에서 이를 폭파시킨다면 심각한 피해

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아프간은 장기간의 전쟁으로 폭발물도 흔하고, 치안능력의 부재로 주변 국가로부터의 폭발물이 쉽게 유입되고 있으며, 제조비용도 저렴하고 제작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IED 공격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방부에 IED 대응기구인 JIEDDO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육군본부에 IED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고 있다. 하지만 IED에 대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아프간 재파병을 앞두고,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협 역시 IED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IED에 취약하고, 도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뢰방호장갑차량(MRAP)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무선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IED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란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재건팀의 보호는 물론 경호·경비의 주체인 군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아프간 재파병을 앞둔 시점에서 IED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IED 대응원칙 수립, IED 위협 평가 및 대응 계획수립, IED 대응에 대한 실질적 교육 및 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첨단 장비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파병 이전에 대 IED 장비의 완벽한 전력화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對) IED 정보 능력 강화, IED 대응에 종합적인 대응기구를 신설하고, IED 교리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2005. 최근 테러의 대상·수법·수단 분석. 서울: 테러정보통합센터.
- 김성진. 2008. IED 위협 분석 및 대비방안: 전·평시 IED 위협 관련 대비 과제를 중심으로. 군사평론. 396: 105-125.
- 윤범기. 2005. 이라크 전구에서의 IED 공격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평론. 375: 65-92.
- 최진태. 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최진태. 2009. 테러시대의 안전 및 생존 전략. 서울: 글마당.
- 최진태. 2009. 국가안보와 대테러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 최진태. 2001. 생화학 무기: 인류 최후의 적, 독가스에서 탄저균까지. 신동아. 506: 242-250.
- Aviv, Juval. 2003. *The Complete Terrorism Survival Guide*. New York: Juris Publishing, Inc.
- Department of the Army, United States Marine Corps. 2005. *Improvised Explosive Device Defeat*(Field Manual Interim No. 3-34.119, Marine Corps Information Publication No. 3-17.01)
- Maffei, Glenn. 2005. Defense Officials Worry Insurgents Will Change IEDS Tactics, Tech. *Inside the Army*. May 9, 2005

- Plummer, Anne. 2004. Deadly Threat of Explosive Devices in Iraq Prompts Secrecy Debate. *Inside the Pentagon*. 20(47)
- The Joint Improvised Explosive Device Defeat Organization. 2008.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7*
- The Joint Improvised Explosive Device Defeat Organization. 2009.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8*.
-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2005. *A Military Guide to Terror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U.S. Army DCSINT Handbook No. 1).
-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06. *2005 Report on Terrorism*
-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07. *2006 Report on Terrorism*
-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08. *2007 Report on Terrorism*
-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09. *2008 Report on Terrorism*
- Wilson, Clay. 2006.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in Iraq and Afghanistan: Effects and Countermeasures.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25, 2006*.

崔鎮泰: 영국 St. Andrews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한국테러리즘소장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대테러협상전문위원, 대테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 연구 분야는 대테러보안, 위기관리, 군사전략, 경호·경비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2006), 알 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2006), 테러시대의 안전 및 생존전략(2009), 국가안보와 대(對)테러 전략(2009) 등이 있다 (happykorean@yahoo.co.kr).

투 고 알: 0000년 00월 00일
게재확정일: 0000년 00월 00일

Analysis on the IED Threats of Redeploying ROK Forces in Afghanistan and Its Countermeasures

Jin Tai Choi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by the request of the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dispatch its troops to Afghanistan again. The main purpose of the troops is to support the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activities. In recent, Taleban has gained it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over the Afghanistan. However, the armies of the US, NATO and Afghanistan have been suffering from inferiority in military strength against antigovernment rebel forces in Afghanistan. As a result,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send more troops up to 30,000 in November 2009.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PRT) and the ROK troops will face an armed conflicts with Taleban, which is one of the bad scenarios for the ROK. After the starting their assignment, it is likely that Improvised Explosive Device(IED) might be one of the most serious risks of safety for ROK troops and PRT. In Iraq, the use of IED has steadily declined since the year of 2007, the major casualties are still coming from the IED attacks.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IED in Afghanistan has dramatically increased causing great concerns. It is said that IED will continue to threaten security forces in Afghanistan. In this connection, with the re-dispatch of troops coming soon, analysis on the counter-IED operation capability and pre-preparation efforts should be taken. In the short term, establishment of IED response principle, threat evaluation of IED, introduction of counter-IED equipment and education on the responsive skills against IED have to be followed. In the long run, reinforcement of intelligence capability on the IED, comprehensive response organization against IED and military doctrine on the IED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 Dispatch of ROK Troops, Afghanistan, Terrorist Attacks using IED, Taleban, Counterterrorism